

세븐틴·아이유 콘서트에 일부 축구팬들 불만 쇄도...왜?

가수들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서 콘서트
 “콘서트 후 잔디 상해서 선수들 경기 불편”
 축구팬, 서울시와 시설공간에 민원 제기
 잼버리 K-팝 콘서트 당시 일부 팬들 불만
 임영웅은 그라운드 객석 없이 콘서트 열어

아이유, 세븐틴 등 유명 가수들이 잇달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해 일부 축구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 콘서트로 잔디가 훼손된다는 우려 속에 축구계와 가요계 간 감정 싸움과 힘겨투기로 번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자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유명 가수 콘서트를 위해 경기장을 빌려줄 예정이다.

규정상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문화 예술 행사에도 대관이 가능하다. 6만6704석 규모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은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행사나 종교 행사에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개방 허가 기준 1순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월드컵, 올림픽, 국가대항전 등)와 연고 구단인 FC서울의 축구 경기, 2순위는 아시아 경기 대회 결승과 외국 유명팀 초청 경기, 공공 행사다. 3순위에 문화 예술 행사가 포함돼 있다.

이에 근거해 공단은 올해 축구 A매치나 FC서울 경기가 없는 시기에 유명 가수 콘서트를 유치했다.

그중 세븐틴이 오는 27일과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팔로우 어게인 투 서울(FOLLOW AGAIN TO SEOUL)’을 연다.

세븐틴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븐틴은 지난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 데 이어 이번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리고 5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안파 스타디움 나카가와 가나자와 닛산 스타디움에서 잇달아 공연할 예정이다.

세븐틴에 이어 인기 남녀 솔로 가수인 임영웅과 아이유가 연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콘서트장으로 쓴다. 임영웅은 다음달 25일과 26일에, 아이유는 오는 9월21일과 22일에 각각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올림픽주경기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상징적인 공연장이다. 그간 ‘문화 대통령’ 서태지를 비롯해 빅뱅, 지드래곤, 싸이 등이 이곳에서 공연했다. 올림픽주경기장이 40여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여는 일이 잦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콘서트장으로 변하자 축구팬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간 콘서트 개최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축구팬들은 지난해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식 겸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과정에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고 이를 계기로 콘서트로 인한 잔디 훼손에 민감해졌다.

지난해 폭염과 부실 운영으로 잼버리가 실패 위기에 직면하자 인기 가수들이 등장하는

폐영식 겸 콘서트가 각국 참가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이에 서울시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제공했고 잼버리 참가자들은 뉴진스, 아이브, NCT 드림, 있지(ITZY) 등의 공연을 보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와중에 축구장 잔디가 훼손됐고 이후 상당 기간 서울이 연고지인 프로축구팀 FC서울은 손상된 잔디 위에서 경기를 펼쳐야 했다.

단순히 잔디만 훼손된 것이 아니었다. 콘서트 장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프로축구 전북 현대 홈구장 전주월드컵경기장이 거론됐고, 이에 따라 전북-인천 간 FA컵 준결승 경기가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행사 장소는 FC서울 홈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바뀌었지만 FA컵 준결승은 이미 연기된 상황이었다. 결국 잼버리 사태로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던 결승은 단판승부로 축소됐다. 축구팬으로서의 한 경기를 덜 즐기게 됐으며 4강에 오른 팀들은 단판으로 우승자를 가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그렇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콘서트 가 예고되자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잼버리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다. 일부 축구팬들은 서울시에서 콘서트 취소 내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잔디 훼손을 우려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조모씨는 ‘상암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를 막아주세요’라는 제안을 올리며 “지금도 K리그 시즌 중이고 6월 중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몇 년 간 콘서트 이후에 잔디가 상해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작년 잼버리 대회 결과 참혹해진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를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K리그 시즌만이라도 경기장 대관을 자



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 글에 9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명이 있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의 민원 창구인 ‘시민의 소리’에서도 콘서트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달부터 콘서트 개최에 반대하는 민원 30여건이 집중 제기됐다.

김모씨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하는 축구팀은 지난 잼버리 사태로 극심한 잔디 손상을 이미 감수했고 손상된 잔디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FC서울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심모씨는 “올해 스타플레이어인 링가드 선수도 오고 역대급 흥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플레이에 악영향을 끼치는 잔디는 축구를 보러 오는 관중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식을 줘서 흥행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세븐틴 가수들의 좌석 예상도가 났는데 정말 잔디 보호할 목적이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는 좌석도 여러 가지 없었다”고 밝혔다.

송모씨는 “최대한 잔디 위에 사람이나 기

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사람이 올라가야 하거나 기물이 올라갈 시 충분한 보호재를 설치하고 잔디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만일 잔디에 손상이 확인될 시 공연용으로 대관을 한 주체에게 분명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잔디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시민의 소리 답변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매년 축구 일정과 잔디 관리 필수 기간 등을 최우선으로 운영 중이다. 잔여 일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사 대관을 하고 있다”며 “행사 주최 측에 잔디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철저히 준수토록 하며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잔디 훼손 방지를 최우선시 하는 등 잔디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평소 축구를 즐기는 임영웅의 경우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 객석 없이 콘서트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양조위·유덕화로 끝 ‘골드핑거’



어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홍콩 대중문화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전설을 다시 한 작품에서 보기까지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는 걸 생각해보면, 벌써 환갑을 넘긴 두 배우가 또 한 번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량차오웨이(梁朝偉·62)와 유덕화(劉德華·63), 아니 양조위와 유덕화. 두 사람이 영화 ‘골드핑거’(공개 4월10일)에서 또 한 번 손잡았다. 2003년에 나온 ‘무간도’ 이후 21년만이다. 이들을 한 데 모으는 데 성공한 장원지양 감독의 새 작품은 범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관객은 이 영화를 좋아할 것 같다. 그들이 한 장면에서 마주선 모습은 양조위와 유덕화를 사랑해마지 않았던 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팬서비스니까 말이다.

‘무간도’ 3부작 각본을 쓴 장원지양 감독이 시나리오와 연출을 모두 맡았다는 점에서 ‘골드핑거’가 그 트릴로지 같기를 바라는 관객이 많겠지만, 이번 영화는 ‘무간도’와 다르다. 198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부동산·금융 부문을 주무르며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인 카르텔 그룹 수장 청이엔(양조위)과 그를 쫓는 반부패 수사관 류치위안(유덕화)의 이야기는 굳이 비교하자면 마틴 스코세이지(식) 갱스터 ‘갱스터 생로병사’를 홍콩 버전으로 변형한 듯하다.

다만 ‘골드핑거’는 이 작품이 표방하는 스코

세이지 영화에는 모든 면에서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간도’가 되살려줬던 홍콩 누아르 특유의 파토스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홍콩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의 명암을 그리며, 이걸 청이엔과 류치위안 두 사람의 대립으로 상징해 드러내는 건 한국 관객에게 새롭게 다가갈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부분을 대사로 설명하고, 각 에피소드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계돼 있지 못하고 반복해서 분절되는 건 최대 약점이다. 다소 유머러스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적지 않게 나온다는 점은 홍콩 영화 특유의 비장함을 기대했던 관객에게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양조위와 유덕화가 있다. ‘골드핑거’를 이끌어 가는 건 캐릭터 혹은 스토리가 아니라 이들 배우의 존재감이다. 유덕화는 그 얼굴에서 서린 특유의 차가움으로 류치위안이 된다. 어떤 흔들림도 없이 목표를 향해 돌진해 나가는 류치위안은 유덕화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이다. 특유의 무표정으로 속내를 숨기다가 순간 흔들림을 드러내는 연기는 아마도 관객이 애정하는 그의 연기일 것이다. 6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날이 서 있는 듯한 얼굴도 그렇고 체중 역시 그대로여서 오래된 홍콩 영화 팬에게 그 모습이 유독 반갑게 느껴질 것이다. 유덕화는 양조위와 함께 있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된다는 점에서 두 배우는 참 좋은 콤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더 흥미로운 쪽은 양조위다. 양조위는 특유의 눈빛을 버린다. ‘중경삼림’ ‘동사서독’ ‘해피투게더’ ‘화양연화’ ‘무간도’ ‘2046’ ‘색, 계’ 등을 지나온 그의 눈은 양조위라는 배우의 상징. 그런데 청이엔에게선 그 특유의 우수(憂愁)가 없다. 대신 그는 능글맞다. 너무 능글맞아서 정그러워 보일 정도로 나아간다. 이 얼굴은 그간 양조위에게서 보지 못한 것이어서 아직도 그에게 새로운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게 놀라게 다가온다.

물론 양조위의 눈을 기대한 관객은 이 연기가 맘에 쏙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그가 아직도 참신해지려는 한다는 걸 ‘골드핑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양조위를 왜 위대한 배우로 부르는지 납득이 간다.

뉴시스

뉴진스, ‘갯 업’도 넘겼다...3장 앨범 전곡 스포티파이 역대 스밍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 기대감 ↑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지금까지 발표한 3장의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역대 스트리밍 반열에 올려놓았다.

10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뉴진스의 두 번째 EP ‘갯 업(Get Up)’과 동명의 수록곡 ‘갯 업’이 지난 8일 기준 누적 1억 11만6371회 재생됐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갯 업’은 앨범의 다른 곡들을 이어주는 일종의 인터루드(Interlude) 곡

이다. 약 36초 길이의 짧은 곡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몽환적인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으며 꾸준한 사랑받은 끝에 스포티파이 역대 스트리밍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데뷔앨범 ‘뉴 진스(NewJeans)’에 수록된 4곡과 싱글 ‘OMG’에 실린 2곡, 두 번째 EP ‘갯 업(Get Up)’에 포함된 6곡 등 총 12곡의 역대 스트리밍 곡을 보유하게 됐다. ‘OMG’가 6억 회 이상, ‘디토(Ditto)’와 ‘하이

프 보이(Hype Boy)’가 각 5억 회 이상, ‘슈퍼 샤이(Super Shy)’가 4억 회 이상 재생됐다. ‘어텐션(Attention)’이 3억 회 이상, ‘쿠키(Cookie)’와 ‘뉴 진스(NewJeans)’, ‘ETA’가 각 2억 회 이상, ‘허트(Hurt)’와 ‘쿨 위드 유(Cool With You)’, ‘ASAP’, ‘갯 업(Get Up)’이 각 1억 회 이상 재생됐다.

뉴진스가 발표한 모든 곡의 스포티파이 합산 누적 스트리밍 횟수는 40억 회를 넘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전작과 신작 구분 없이 내놓는 곡마다 대중적 ‘통큰 인기’와 함께 평단의 호평을 받는다는 점에서 내달 24일 발매되는 이들의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하우 스위트’ 예약판매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시작한다. 수록곡 ‘버블껌(Bubble Gum)’ 뮤직비디오가 27일 0시 선공개된다. ‘버블껌’은 지난 8일 일본 후지TV의 아침 방송 프로그램 ‘메자마시 8’ 테마송과 일본 샴푸 광고 CM 송으로 일부 공개됐다.

‘버블껌’은 단순한 드림 패턴에 시원한 느낌의 패드 신스 사운드가 더해진 상큼한 곡이다. CM 속 멤버들의 청량함과 어우러지며 신곡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노래방 男 아이돌 차트 1위...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금영노래방 남자 아이돌 차트 정상 올라

그룹 ‘투어스(TWS)’가 금영노래방 남자 아이돌 차트 정상에 올랐다.

9일 금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전국에 설치돼 있는 금영노래방 반주기, IPTV 금영노래방 서비스 4월 남자 아이돌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투어스의 데뷔 앨범 ‘스파클링 블루(Sparkling Blue)’는 소년미, 청량미가 돋보이는 보이후드(Boyhood) 팝 장르를 기반으로 한다. 매 음표와 가사에서 소년 시절의 자연스러

운 이야기를 포착한다.

그중 타이틀곡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 발매 일주일 만에 음원사이트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점차 상승세를 타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데뷔곡으로서는 이례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4월 현재 금영노래방 남자 아이돌 차트 중 5세대 아이돌 순위는 1위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2위 라이즈(RIIZE) ‘러브 119(Love 119)’, 4위 라이즈 ‘갯 어 기타(Get A Guitar)’, 6위 플레이브(PLAVE) ‘여섯 번째 여름’, 8위 플레이브 ‘웨이



포 러브(WAY 4 LUV)’, 10위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뱃 갯야’ 등이다. 약진했던 4세대 아이들에 비해 5세대 남자 아이돌이 순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